“농정독재 철폐, 낙농기반 사수”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www.naknong.or.kr	**투쟁속보26 (국회 앞 농성투쟁 84일째)**

제 공 자 : 한국낙농육우협회(회장 이승호)	제 공 일 : 2022년 5월 10일(화)
담당부서 : 정책기획본부(02-588-7055)	담 당 : 한지태 본부장, 이정훈 과장

정황근 신임장관, “낙농문제, 터놓고 협의하자”

- 이승호 회장, “낙농문제 만큼은 장관님이 직접 챙겨달라” -

□ 농성투쟁 84일차인 5월 10일(화) 오후,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신임장관이 국회 앞 농성장을 전격방문하고, 이승호 회장과 환담을 가졌다.

○ 정황근 신임장관은 농성 장기화에 따른 이승호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, “낙농가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”며, “조만간 터놓고 협의하자”고 이승호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.

○ 이에 대해 이승호 회장은 “바쁘실 텐데 농성장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”며, “낙농문제 만큼은 장관님이 직접 챙겨달라”고 답했다.

□ 한편, 농성장기화에도 불구하고, 협회 집행부를 위로하는 지도자들과 농민단체장들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.

○ 5월 9일(월), 강원도에서 이건영 강원도지회장, 이원용 원주연합회장, 정병규 횡성연합회장 등 강원 지도자들이 농성장을 방문하였으며,

○ 5월 10일(화),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(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),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,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, 원용덕 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장 등 농민단체장들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이승호 회장을 격려했다. “끝”